

카리스마 리더십과 영성의 인과관계 연구

A Empirical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arisma Leadership and Spirituality

윤천성, 홍두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과

Chun-Sung Youn(staryoun@hanmail.net), Dhu-Yun Hong(dynhong@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안팎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리스마와 영성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과 리더십의 미래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목회자의 카리스마리더십은 일반성도들의 영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위요소인 양육, 기도, 전도, 제자도, 지도자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회자의 카리스마리더십은 일반성도들의 영성 즉 사람들과의 관계의 하위요소인 양육, 기도, 전도, 제자도, 지도자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요인이다.

■ 중심어 : | 카리스마 | 리더십 | 영성 | 성령 | 은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fluence and leadership of church communities through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charisma and spirituality, used inside and outside of the churches. This study will show two things in detail. First, charisma leadership of pastor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pirituality of lay people, that is, subcategories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such as nurturing, prayer, evangelism, discipleship, and leaders. Second, therefore, charisma leadership of pastors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influences the spirituality of lay people, that is, subcategories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such as nurturing, prayer, evangelism, discipleship, and leaders.

■ keyword : | Charisma | Leadership | Spirituality | Holy Spirit | Grace |

I. 들어가는 말

모든 국제 정세가 카오스(chaos) 상태에 놓여 있다. 상황은 결코 고정적이지 않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항상 요동치는 흐름이다. 이제 세계는 단순한 숫자 계산의 논리를 넘어서, 보다 유연하고 동적인 비선형(非線形)적 구조인 불확실성의 시대다[1].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혼란의 시대에 21세기 집단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그 본질적인 측면은 무엇일까 고찰하는 가운데 성경 어휘 속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사회 속에서 거론되어지는 “카리스마(Χάρισμα)”와 “영성”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리더십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수평적 리더십과 홀라키(holarchie) 리더십, 상황적 리더십, 생태학적 리더십이 주장되고 있다[2].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위기와 혼란 가운데 공동체의 혼란을 수습하여 사람들을 이끌어온 것이 카리스마 리더십이었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적 환경인 영성의 작용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카리스마 리더십 안에는 조직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시스템이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을 뒷받침하듯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페트리셔 애버딘은 21세기가 제 5의 물결인 ‘영성시대’로 페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3].

따라서 본 논문은 카리스마와 영성의 역사적 측면이나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목회자의 카리스마와 영성의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두 변수의 인과관계가 기독교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찰하여 미래를 조망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카리스마

사회 전반에 걸쳐서 특출한 리더에게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다. 혹은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졌다고 말한다. 과연 이 이야기들이 정당한 표현일까?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그렇게 진단하고 표현하기 전에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내용 이해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 내면의 차원과 리더를 보는 자신의 정체성이 결국에는 리더들의 행동을 그릇되게 판단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리더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

이렇듯 카리스마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지금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카리스마는 성경에 근거한 카리스마와 사회학적인 카리스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카리스마이다. 성경에 근거한 카리스마를 이해하려면 그 모체인 카리스(Χάρις: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카리스(Χάρις)라는 말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카리스의 본질은 하나님이 받는 자에게 보

상의 요구나 기대 없이 베푸는 자발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이다[5]. 하나님은 타락하고 원수된 인간에 대하여 그 고귀한 가치를 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최고의 부드러움으로 믿는 자들에게 선물 중의 최고의 선물인 그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사하셨고 보증으로 성령(영)을 그 사람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따라서 카리스마(Χάρισμα)는 카리스(Χάρις) 안에 포함된 것으로써 하나님의 선물 중의 하나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재능(gift)’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은사에 대한 성령의 역할을 묘사하면서 사용되었다.

성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Χάρις)대로 받은 은사(Χάρισματα)가 각각 다르니”(롬 12:6)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카리스마는 내 뜻, 내 양식, 내 재능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재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4-11에서는 카리스의 한 부분인 카리스마(은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기에 성경적인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선물이며 재능이다.

두 번째는 사회학적인 카리스마다. 사회학자인 막스 웨버(MaxWeber)는 한 사람의 특출한 능력이 신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나 구성원에 의해 부여됨으로써 조직의 형성,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카리스마의 개념을 적용시켰다[6]. 분명히 웨버는 카리스마 개념을 바울 자신으로부터 루돌프 슨(Rudolf Sohm)을 경유하여 취하였지만 웨버가 말한 카리스마는 성경에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사회학적이고, 분석적이며,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7].

또한 하우스(House)의 경우,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카리스마 리더는 강한 권력욕, 고도의 자신감, 신념과 이상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카리스마 리더는 자신이 유능하고 성공적이

라는 인상을 팔로워들에게 심어주려고 계획된 행동을 한다[8]. ② 카리스마 리더는 팔로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이상, 열망 등과 집단의 사명 등에 관련된 이념적 목표를 구체화한다. 미래 목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호소력 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집단 과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팔로워들이 열정과 흥분을 일으킨다. ③ 카리스마 리더는 팔로워들이 모방할 수 있는 모범적인 형태를 보인다[9]. 이러한 주장은 카리스마를 부여하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이 공동체를 의식해서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개발하는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트라이스와 바우어는(Trice & Beyer)는 카리스마 리더의 행동 특성에 대해 ① 비범한 개인적 특성을 소유하고, ② 급진적 메시지나 사명을 보여주어야 하며, ③ 메시지와 사명은 널리 인식된 위협을 전하고, 사회적 동요의 근원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10]. 또한 ④ 리더의 개인적 특성이 부하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흥분, 경외, 존경의 상태로 야기시켜서 리더의 급진적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전통적인 규범을 어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9], ⑤ 카리스마의 유효성을 위해 사명의 명백한 성공을 보여 주어야 함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11]. 즉 이것은 카리스마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의 강권함과 자발적인 발로가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개조가 많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학적 카리스마란 하나님의 선물과 재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리더의 특성과 행동에 대한 부하들의 지각에 의해 결정되고, 부하들의 지각은 리더십이 발휘되는 상황과 개인의 욕구 및 전체의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현대의 목회자들은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카리스마 리더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도적인 사회학적 차원의 카리스마일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는 진정한 카리스마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학적 카리스마를 남용하거나 자기 방식과 자기 의도대로의 고집과 독선과 압력을 카리스마로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고, 더 나아

가 교회의 존립까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성서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딤후 2:11-12)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카리스마로, 인간의 개발과 의도적인 역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인간의 내부적인 환경을 개선하시고 자발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 즉 카오스 속의 카리스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2. 영성

오늘날 영성은 기독교 신학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기독교 운동이나 이슬람, 힌두, 불교 등 비기독교 영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의 범주를 넘어선 문화적 영역 즉 예술, 과학, 철학, 심지어 경영에서도 사용되고 있다[12].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과학적이거나 논리적, 통계적인 것들이 벽에 부딪히면서 시간과 역사로부터 탈출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는 신비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영혼 해방과 구원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13].

이러한 시도들은 ‘과연 내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귀음을 추구하며 외적으로 사람과 창조세계를 이끌며 사랑할 수 있는 통합적 영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행방법’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영성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고찰해보면 『영성사전』(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에서 고든 웨이크필드(G. S. Wakefield)는 “영성이란 인간 삶의 활기 또는 생기를 돌우고 초지각적(super-sensible) 실체들을 향해 뻗어 나가게 하는 태도, 믿음, 실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신앙공동체와 격리된 영성, 그 자체의 가치를 별도로 추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영성 내면에 근본적으로 함유된 합리적 판단이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채, 개인의 편익과 만족에 근거하여 영성을 특화된 주제로 고립시키는 왜곡된

추세를 반영한다[14].

그렇다면 기독교적 영성은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적 정의들을 내리고 주장되어 왔지만 그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에서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은 단지 그 사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눈앞에 드러나게 한 방식을 가리킨다[15]. 안영권은 기독교 영성은 삶의 실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제 삼자에게 표현하는 것이다[16]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를 닮아가며 오늘날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해가는 기독교인의 전반적인 생활”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성의 현대적 문제점은 그것을 치유나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거나 일상생활을 윤택하고 원만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도구로서 인식하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영성은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은 주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경험하는 총체적인 삶의 변화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17].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서 믿는 죄인을 다시 나게 하며 그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가진 영원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18]. 그 보증으로 성령을 인간의 마음에 거하게 하셨다(고전 3:16).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만 영(성령)을 소유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 안에 거하며 역사한다[19]. 그래서 권택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아닌 자연인의 도덕성은 영성과 관계가 없고, 영성은 크리스천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라고 주장한다[20]. 그것을 볼 때에 영(성령)의 발원지는 하나님이며 영성의 근거는 성령(영)이다. 그것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요 15:26)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된다. 주목할 점은 영(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취하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라고 선언하고 있다.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21].

따라서 영에 거하는 자들은 영의 성격의 특질과 색깔을 자발적으로 내게 되는데, 이러한 무한한 파동들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없다. 즉 성령의 사역과 성령에 충만한 영성적 사람들의 특징은 창발성(emergence)의 특징을 지닌다[22].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삶은 일종의 프리즘으로서 거기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은혜와 주(主)의 아름다움을 분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영(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령의 자발적인 역사를 통하여 영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영성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세속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분리하며 사막이나 동굴이나 수도원에서 극기와 절제와 명상과 고행 등을 통하여 얻은 인물에게 그 신성성을 두어 왔다[23]. 이러한 생각의 배면에는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영적 세계와 신체적, 물질적 이원론이 전제되었다. 영혼, 정신, 영적 세계는 영원하고 거룩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육체, 물질, 신체적, 물질적 세계는 허무하고 속되고, 죄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24]. 따라서 현대에 와서 영성이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도원이나 다른 고행을 통해서 훈련에 의해서 얻을 것이냐는 복음시대에 와서 새롭게 연구해야 할 과제다.

그것은 고난과 폐기된 율법 조항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영성을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질문과 똑같다.

이렇듯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신자들의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형상에 일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25].

요약하자면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총체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카리스마 변수가 기독교 입장에서 정량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기에 측정도구는 샤미어와 하우스(Shamir & House)의 사회학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의 변수를 사용하였고[26], 종속변수인 영성은 이종용(2004)이 하나님의 관계인 수직적인 차원과 사람들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차원의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성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27]. 영성의 변수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들은 기독교의 신념(Christian Belief) 차원의 문항들로 믿음(faith)을 기초한 성서적 주제를 반영하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들은 기독교인의 행동 차원의 문항들로 성서적 개념과 일치하는 기독교인의 행동을 반영하였다[28]. 즉 인지적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양육)과, 정서적 영역에서 기도, 그리고 영적 행위영역에서 전도, 제자도[29], 지도력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그리고 카리스마와 영성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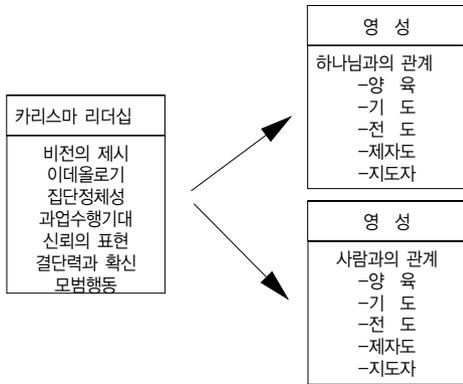


그림 8. 연구모형

가설1. 카리스마리더십은 하나님과의 관계(양육, 기도, 전도, 제자도, 지도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카리스마리더십은 사람과의 관계(양육, 기도, 전도, 제자도, 지도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중순까지 기독교 일반교회에 소속된 11개 교회 일반성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설문은 670부를 배포하여 650부가 회수되고 그 중 불성실한 대담 104부를 제외한 546부가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표 1. 조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	기독교 일반교회 일반성도
표본단위	기독교 일반교회에 소속된 11개 교회
조사범위	일반성도 670명
조사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약1년)

3.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각 항목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과 이론을 근거로 총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명목적으로 구성하였고, 카리스마리더십, 영성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카리스마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은 팔로워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리더의 차별적 요건은 타고나거나 높은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든, 전문성이든 간에 팔로워로부터 “뛰어나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hamir(1998), J. R. House(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총 7개 하위요인인 비전의 제시 7문항, 이데올로기 5문항, 집단정체성 6문항, 과업수행기대 5문항, 신뢰의 표현 7문항, 결단력과 확신 6문항, 모범행동 6문항 등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 영성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성서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영성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로 구분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RG: Relationship with God)를 나타내고, 사람과의 관계는(RP: Relationship with people) 수평적 관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웅(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5개 하위요인인 양육 4문항, 기도 4문항, 전도 4문항, 제자도 4문항, 지도자 4문항 등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

변수명	측정개념	문형	문항수	문항번호	출처
카리스마 리더십	비전의 제시	I	7	1,2,3,4,5,6,7	Shamir (1998) J.R. House (1998)
	이데올로기			8,9,10,11,12	
	집단정체성			13,14,15,16,17,18	
	과업수행기대			19,20,21,22,23	
	신뢰의 표현			24,25,26,27,28,29,30	
	결단력과 확신			31,32,33,34,35,36	
	모범행동			37,38,39,40,41,42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양육 기도 전도 제자도 지도자	II	20	6,9,10,13 1,11,12,14 4,5,7,8 2,3,19,20 15,16,17,18	이종웅 (2004)
	사람과의 관계: 양육 기도 전도 제자도 지도자	III	20	3,4,6,7 10,11,12,20 16,14,15,17 5,8,9,13 1,2,18,19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신앙생활 기간, 결혼여부, 월교회 출석횟수, 직분, 교회봉사	IV	8	1,2,3,4,5,6,7,8	-
전체			90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영성(하나님과의 관계/사람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카리스마 리더십과 영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표본 특성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사대상자가 고른 분포를 나타내어야만, 분석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에 요약되어 있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과 연령 및 학력과 신앙생활 등의 비율 정도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어, 카리스마 리더십과 영성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표본 특성

변수	특성	n	%	변수	특성	n	%
성별	남성	239	43.8	결혼 여부	기혼	299	54.8
	여성	307	56.2		미혼	247	45.2
연령	20세 미만	39	7.1	교회 봉사	성가대	12	22.3
	20-30세 미만	201	36.8		교회청소	99	18.1
	30-40세 미만	89	16.3		주방봉사	87	15.9
	40-50세 미만	104	19.0		주일학교	70	12.8
	50-60세 미만	84	15.4		교사		
	60세 이상	29	5.3		안내 및 헌금봉사	62	11.4
최종 학력	중졸	28	5.1	차량봉사	34	6.2	
	고졸	207	37.9	기타	182	56.4	
	대졸	270	49.5	직분	장로	14	2.6
	대학원 졸	41	7.5		권사	27	4.9
					집사	180	33.0
			일반성도		230	42.1	
신앙 생활 기간	1년 미만	37	6.8	월교회 출석 횟수	매일	128	23.4
	1-5년 미만	107	19.6		1-3회	78	14.3
	5-10년 미만	82	15.0		4-5회	119	21.8
	10-15년 미만	102	18.7		6-10회	115	21.1
	15년 이상	218	39.9		10회 이상	106	19.4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타당성이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였고, 회전방식은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 선택하였으며,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4 이상인 경우를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2.1 카리스마리더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다음 [표 4]는 카리스마리더십에 대한 42개의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12.030%)은 '신뢰의 표현'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11.761%)는 '비전의 제시'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10.962%)은 '모범행동'으로, 요인 4(9.772%)는 '집단 정체성'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5(9.744%)는 '과업 수행기대'로 명명하였고, 요인 6(9.409%)은 '이데올로기'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7(9.125%)은 '결단력과 확신'으로 명명하였다. 이 7개의 요인 적재 값이 ± 0.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카리스마리더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성 분						
	신뢰의 표현	비전의 제시	모범 행동	집단 정체성	과업 수행 기대	이데올로기	결단력 과 확신
28. 목사님은 귀하가 세운 업적에 관한 지지를 보여준다.	.797	.076	.138	.089	.179	.076	.163
26. 목사님은 전반적으로 귀하를 믿는다.	.778	.172	.215	.060	.143	-.027	.045
30. 목사님은 귀하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769	.066	.198	.086	.119	.072	.073
25. 목사님은 교회의 목표에 공헌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에 신뢰를 보여 준다.	.765	.121	.160	.096	.223	.073	.120
27. 목사님은 실질적인 책임을 귀하에게 위임하는 편이다.	.748	-.078	-.013	.121	.067	.217	.027
24. 목사님은 지시 없이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에 신뢰를 보여 준다.	.691	.140	.110	.167	.319	.045	.054
29. 목사님은 귀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673	.198	.246	.042	.280	.046	.230
1. 목사님은 교회조직의 미래에 대해 성과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119	.753	.204	.121	.060	.085	.174
3. 목사님은 미래비전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077	.752	.156	.147	.091	.155	.224
2. 목사님은 미래에 꿈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고무시킨다.	.091	.747	.233	.138	.119	.144	.243
4. 목사님은 향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할지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047	.742	.199	.120	.095	.155	.221
5. 목사님은 내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될지 알게 해준다.	.126	.709	.297	.052	.129	.185	.097
6. 목사님은 나에게 뚜렷한 목적의식을 심어준다.	.146	.636	.246	.115	.209	.246	.118
7. 목사님은 우리가 협력하여 일하면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해준다.	.093	.612	.312	.103	.134	.327	.249
40. 목사님은 항상 모범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217	.265	.817	.107	.139	.085	.119
39. 목사님은 귀하가 따라야 할 좋은 모범인이다.	.197	.281	.789	.078	.126	.048	.146
38. 목사님은 숭선수범함으로써 성도들을 이끈다.	.170	.240	.754	.154	.087	.014	.191
41. 목사님은 바람직한 모범기준을 잘 설정한다.	.254	.239	.745	.160	.100	.112	.192
42. 목사님은 교회 일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하여 사생활을 희생하는 편이다.	.184	.280	.736	.118	.151	.165	.261
37. 목사님은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잘 실천한다.	.091	.197	.688	.158	.113	.050	.299

14. 목사님은 귀하의 교회만이 갖는 독특성을 강조한다.	.109	.164	.134	.884	.056	.136	.128
16. 목사님은 귀하의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한다.	.092	.241	.179	.796	.128	.169	.220
18. 목사님은 귀하의 교회에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한다.	.136	.320	.240	.744	.186	.137	.217
17. 목사님은 귀하의 성취에 대해 높은 긍지를 보여 준다.	.211	.193	.209	.738	.289	.123	.190
13.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를 자주 강조한다.	.070	.004	.037	.637	.109	.318	.107
15. 목사님만이 갖는 독특한 슬로건이나 애칭을 자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60	-.079	.023	.539	.248	.286	.134
20. 목사님은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해준다.	.181	.192	.163	.174	.857	.186	.149
23. 목사님은 귀하가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전달한다.	.345	.156	.161	.155	.791	.145	.200
21. 목사님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보다 귀하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한다.	.332	.084	.098	.231	.780	.224	.093
19. 목사님은 귀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326	.148	.102	.239	.770	.160	.205
22. 목사님은 지속적으로 귀하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369	.209	.227	.165	.761	.137	.133
9. 목사님은 교회의 과거 성공담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096	.108	.014	.176	.101	.890	.122
10. 목사님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096	.285	.079	.213	.125	.824	.144
12. 목사님은 새로운 목표나 계획에 대하여 열성적으로 설명한다.	.060	.272	.055	.217	.141	.807	.243
8. 목사님은 교회의 역사나 내력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	.156	.190	.174	.151	.196	.686	.109
11. 목사님은 교회의 경정이념이나 정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081	.271	.097	.326	.172	.626	.155
35. 목사님은 목표를 성취할 때 강한 결단력을 보여 준다.	.018	.270	.229	.136	.103	.161	.763
34.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의 올바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158	.210	.172	.208	.015	.060	.689
36. 목사님은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악착같은 결단을 보여준다.	-.012	.137	.150	.262	.158	.229	.678
31. 목사님은 강한 자기 확신을 성도들에게 보여 준다.	.106	.201	.195	.134	.156	.237	.663
32.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이를 위험보다는 기회로 파악한다.	.241	.200	.217	.124	.186	.109	.657
33. 목사님은 변화하는 환경을 기회가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한다.	.287	.249	.224	.103	.170	.074	.600
고유값	5.052	4.940	4.604	4.104	4.093	3.952	3.833
분산변량%	12.030	11.761	10.962	9.772	9.744	9.409	9.125
누적변량%	12.030	23.791	34.752	44.524	54.269	63.678	72.803
신뢰도	.908	.916	.933	.889	.961	.913	.878

2.2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다음 [표 5]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17.725%)은 '제자도'로 명명하였고, 요인 2(17.473%)는 '지도자'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17.258%)은 '기도'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4(15.661%)는 '양육'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5 (14.773%)는 '전도'로 명명하였다. 이 5개의 요인 적재 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다음 [표 6]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16.473%)은 '기도'로 명명하였고, 요인 2(16.442%)는 '제자도'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16.114%)은 '전도'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4(14.408%)는 '양육'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5(13.149%)는 '지도자'로 명명하였다. 이 5개의 요인 적재 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비전의 제시,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과업수행기대,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은

표 5.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성 분				
	제자도	지도자	기도	양육	전도
11. 나는 십일조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883	.104	.157	.262	.165
1.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이며 또한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807	.200	.132	.178	.317
14. 나의 믿음은 교회에 출석할 때마다 새로워진다.	.792	.043	.339	.316	.167
12. 나는 학업에 가벼운 지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다.	.769	.129	.343	.348	.146
19. 나는 비록 신앙인일지라도 믿음이 나의 모든 일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R)	.052	.941	.085	.086	-.029
2. 나는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또한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을 믿는다.	.135	.904	.098	.075	.232
3. 나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137	.892	.131	.066	.265
20. 나는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느낀다(R)	.066	.828	.123	.071	.030
17.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할 때 나는 내 삶이 충만한 것을 느낀다.	.213	.206	.832	.151	.292
15. 나는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청원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한다.	.218	.132	.808	.210	.301
18.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규칙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220	.120	.782	.312	.241
16.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고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면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258	.116	.687	.291	.278
10. 나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공부를 한다.	.300	.079	.194	.883	.125
9. 나에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신앙이 인생의 의미에 대한 많은 질문에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307	.108	.323	.727	.331
6.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346	.161	.315	.697	.377
13. 나는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암송한다.	.359	.113	.313	.692	.367
4.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	.177	.188	.287	.218	.797
5. 나는 자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곤 한다.	.164	.101	.299	.261	.751
8.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산다.	.332	.230	.307	.147	.664
7.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평안이 있다.	.206	.058	.306	.360	.547
고유값	3.545	3.499	3.452	3.132	2.955
분산변량%	17.725	17.493	17.258	15.661	14.773
누적변량%	17.725	35.218	52.477	68.138	82.911
신뢰도	.937	.916	.924	.942	.861

표 6.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성 분				
	기도	제자도	전도	양육	지도자
15. 나는 친구가 옷을 빌려 달라고 하면 조건 없이 빌려준다.	.843	.153	.235	.224	.185
17.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이 더욱 증진된다.	.802	.243	.231	.133	.179
14. 나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다.	.787	.160	.133	.185	.220
16.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	.782	.202	.324	.205	.194
2.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을 믿는다.	.110	.886	.134	.236	.111
18.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315	.804	.137	.211	.125
19.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나는 쉽게 용서한다.	.190	.744	.164	.190	.285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33	.731	.284	.127	.162
8. 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도한다.	.207	.170	.856	.168	.173
13. 나는 머물 곳이 필요한 손님들에게 집을 늘 개방한다.	.297	.076	.768	.222	.197
9.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220	.299	.751	.186	.256
5.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기쁨이 충만할 때가 많다.	.231	.383	.703	.229	.197
6. 나는 나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143	.121	.326	.828	.232
4. 나는 영성은 좋는데 인간성은 나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R)	.194	.200	.000	.738	.088
3. 나는 삶에서 성경적인 행함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4	.374	.273	.736	.150
7. 나는 성공한 사람에게 칭찬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격려한다.	.240	.183	.348	.673	.229
10. 나는 봉사할 때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136	.162	.170	.135	.849
20. 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가 하는 그러한 봉사활동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237	.231	.129	.082	.812
11. 나는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나의 주관을 바꿀 수도 있다.	.169	.090	.301	.190	.589
12.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일이 즐겁다.	.251	.183	.170	.366	.552
고유값	3.295	3.288	3.223	2.882	2.630
분산변량%	16.473	16.442	16.114	14.408	13.149
누적변량%	16.473	32.915	49.029	63.437	76.586
신뢰도	.836	.726	.842	.792	.628

하나님과과의 관계의 하위요인별 양육, 기도, 전도, 제자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비전의 제시, 집단정체성,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위요인별 지도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p<.05). 또한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비전의 제시,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과업수행기대,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위요인별 양육, 기도, 전도, 제자도, 지도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p<.001).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카리스마 리더십과 영성 관련 변수들이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호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를 위한 변수들로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카리스마리더십과 영성의 관계분석

4.1 카리스마리더십과 영성(하나님과의 관계) 영향력 분석

가설1-1은 카리스마리더십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24.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6.781, p<.001). 독립변수별로는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신뢰의 표현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p<.05). 즉, 신뢰의 표현이 높아지면 양육은 .26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데올로기가 높아지면 양육은 .18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집단정체성이 높아지면 양육은 .13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신뢰의 표현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1-2는 카리스마리더십이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8.189, p<.001). 독립변수별로는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p<.01). 즉, 결단력과 확신이 높아지면 기도는 .23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의 표현이 높아지면 기도는 .169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1-3은 카리스마리더십이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표 7. 카리스마리더십이 영성(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카리스마 리더십						
			비전의 제시	이데올로기	집단 정체성	과업 수행기대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양육	β	-.040	.174***	.132*	-.012	.263***	.048	.102
		R ²	.249						
		F	26.781***						
	기도	β	.025	.056	.022	-.023	.161**	.272***	.077
		R ²	.181						
		F	18.189***						
	전도	β	.039	.140**	-.040	-.053	.216***	.244***	.076
		R ²	.201						
		F	20.620***						
	제자도	β	-.004	.186***	.111*	-.091	.131*	.137*	.211**
		R ²	.217						
		F	22.519***						
	지도자	β	.111	-.044	-.025	-.103	-.077	.212*	.320***
		R ²	.091						
		F	8.840***						

*P<.05, **P<.01, ***P<.001

분석되었다(F=20.620, p<.001). 독립변수별로는 이데올로기,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신뢰의 표현이 높아지면 전도는 .221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단력과 확신이 높아지면 전도는 .20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이데올로기가 높아지면 전도는 .15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1-4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제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7%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2.519, p<.001). 독립변수별로는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이 제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이데올로기가 높아지면 제자도는 .191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범행동이 높아지면 제자도는 .179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신뢰의 표현이 높아지면 제자도는 .129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결단력과 확신이 높아지면 제자도는 .111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집단정체성이 높아지면 제자도는 .10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제자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1-5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지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840, p<.001). 독립변수별로는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이 지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모범행동이 높아지면 지도자는 .237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단력과 확신이 높아지면 지도자는 .15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도자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이 중요한 요인이다.

4.2 카리스마리더십과 영성(사람과의 관계) 영향력 분석

가설2-1은 카리스마리더십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0.811, p<.001). 독립변수별로는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결단력과 확신이 높아지면 양육은 .207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의 표현이 높아지면 양육은 .16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표 8. 카리스마리더십이 영성(사람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카리스마 리더십						
			비전의 제시	이데올로기	집단 정체성	과업 수행기대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
영성 (사람과의 관계)	양육	β	-.018	.067	.050	.045	.140**	.207***	.040
		R2	.203						
		F	20.811***						
	기도	β	.058	.108*	.066	.057	.044	.133*	.078
		R2	.170						
		F	16.867***						
	전도	β	-.014	.132*	.190**	.144*	.136*	.085	.105
		R2	.261						
		F	28.414***						
	제자도	β	.003	.037	.041	-.015	.121**	.216***	.154**
		R2	.207						
		F	21.162***						
	지도자	β	.027	.034	.017	.082	.174***	.134*	.053
		R2	.171						
		F	16.986***						

*P<.05, **P<.01, ***P<.001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2-2는 카리스마리더십이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6.867, p<.001$). 독립변수별로는 이데올로기, 결단력과 확신이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이데올로기가 높아지면 기도는 .12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단력과 확신이 높아지면 기도는 .12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결단력과 확신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2-3은 카리스마리더십이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6.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8.41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과업수행기대, 신뢰의 표현이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집단정체성이 높아지면 전도는 .16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업수행기대가 높아지면 전도는 .137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이데올로기가 높아지면 전도는 .12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신뢰의 표현이 높아지면 전도는 .12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과업수행기대, 신뢰의 표현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2-4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제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7%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1.162, p<.001$). 독립변수별로는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이 제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결단력과 확신이 높아지면 제자도는 .214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범행동이 높아지면 제자도는 .15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신뢰의 표현이 높아지면 제자도는 .144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제자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2-5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지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17.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6.986, p<.001$). 독립변수별로는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지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신뢰의 표현이 높아지면 지도자는 .19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단력과 확신이 높아지면 지도자는 .12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도자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중요한 요인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11교회 일반성도들을 대상으로 카리스마와 영성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카리스마리더십과 영성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1의 검증결과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있어서 카리스마리더십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신뢰의 표현이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가설1-2의 검증결과는 카리스마리더십이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에 있어서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1-3의 검증결과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4의 검증결과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제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자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1-5의 검증결과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지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에 있어서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과업

수행기대, 신뢰의 표현이 중요한 요인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카리스마리더십과 영성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2-1은 카리스마리더십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있어서는 카리스마 하위요인별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2-2는 카리스마리더십이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결단력과 확신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2-3은 카리스마리더십이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이데올로기, 집단정체성, 과업수행기대, 신뢰의 표현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2-4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제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자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 모범행동이 중요한 요인이다.

가설2-5는 카리스마리더십이 지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에 있어서는 카리스마리더십의 하위요인별 신뢰의 표현, 결단력과 확신이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카리스마와 영성의 인과관계 연구를 통하여 하위요인들이 교회 공동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리더십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규명 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이상오, 리더십,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2.
 [2] 이상오, 리더십, 2012.
 [3] 최은수, 텍스트패러다임, 미디어 그룹, 2008.
 [4] 계재광, “리더십에 있어서 신앙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38권 p.199, 2014.
 [5] 로버트슨. A. T./케네스 S, 위스트 번역위원회 옮김, 신약원어대해설(8권), 요단출판사, 1994.

[6] M.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sation*. Translated by A.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7] 홍영기, 카리스마 리더십, 교회성장연구소, 2001.
 [8] R. J. House, “A 1976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J. C. Hunt and L. L. Larson(eds.) *Leadership: The outing edge* (Carbondale, Ill.: Soute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p.189-207, 1977.
 [9] 김성희,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들의 효과검증, 서울과학종합대, 박사학위논문, pp.21-22, 2009.
 [10] H. M. Trice and J. M. Beyer, “Charisma and its routinization in two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8, pp.113-164, 1986.
 [11] 구연성, 카리스마 리더십이 동기부여적 자아개념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9-10, 2004.
 [12] 유해룡, 영성의 발자취,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p.14, 2011.
 [13] 권택조, 기독교 성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p.22, 2009.
 [14] 조성호, “리더십을 통해 본 한국 신학교육의 위기와 대안”, 한국신학논총, 제11권, p.89, 2012.
 [15] 맥그리스, 알리스터, 종교개혁시대의 영, 박규태 옮김, 좋은 씨앗, 2006.
 [16] 민장배, “예배를 통한 영성회복에 대한 소고”,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0권, p.240, 2009.
 [17] 최봉도, “한국 기독교 안에서 삶에 관여하는 영성교육의 추구”, 신학과 실천, 제32권, p.616, 2012.
 [18] 로버트슨. A. T./케네스 S, 위스트 번역위원회 옮김, 신약원어대해설(8권), 서울: 요단출판사, 1994.
 [19] 유장환, “틸리히의 신학과 영성”, 한국조직신학논총, 제7권, p.136, 2002.

[20]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p.22, 2009,
 [21] 박은서, *기독교 영성형성*, 도서출판 영적네트워 크, 2013.
 [22] 김경재, *한국교회의 올바른 영성확립과 그 해석 학적 성찰과 조명*, 호남대학교출판부, p.21, 2010.
 [23] 김도훈, *생태신학과 생태영성*,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24] 김근진, “몰두만의 신학과 영성”, 한국조직신학 회논총, 제7권 p.171, 2002.
 [25] 김영선,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 한국조직신학 논총, 제7권, p.68, 2002.
 [26] B. Shamir, R. J. House, and M. B. Auther, “The motivational effects of charismatic leadership: A self-concept based theory,” *Organizational Science* p.4, 1993.
 [27] 최봉도, “한국 기독교 안에서 삶에 관여하는 영 성교육의 추구”, 신학과 실천, 제32권, p.611, 2012.
 [28] 이종웅, *영성지수의 타당도 검사*, 아세아연합신 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7, 2004.
 [29] 이종웅, *영성지수의 타당도 검사*, 아세아연합신 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 2004.

홍 두 윤(Dhu-Yun Hong)

정회원



- 2015년 2월 : 서울벤처대학원 대 학교 융합산업과 박사과정 수료
- 1999년 ~ 2015년 현재 : 밝은교 회 목사

<관심분야> : 융합이론, 뇌 과학(뉴로피드백), 리더십 (성격 리더십)

저 자 소 개

윤 천 성(Chun-Sung Yun)

정회원



- 2006년 3월 : 서울벤처대학원 대 학교 융합산업과 교수
- 2007년 2월 :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 2006년 ~ 현재 : 서울벤처대학 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인사조직심리리더십, 한국형도형심리, 에니어그램, 뷰티산업.